

서운영의 '집과 사람'



높은 건물 뒤의 깊은 그림자

해의 도시들에는 색다른 명소가 있는데, 그 중 중국 베이징에는 파산즈(大山子) 789 라는 예술인마을이 있다.

구로동과 영등포 등지는 1960~70년대 고도성장기에 산업화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공단이 서울 외곽이나 중국 등지로 이전하면서 쇠퇴하였지만 최근 문화 디자인의 요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옥인동 일대는 본래 청와대가 인근에 있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다가 최근 새로운 음식점과 카페 등이 생기면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유럽의 도시에는 버려진 공장과 창고 건물을 새로운 장소로 전환시킨 경우가 많다. 주로 19세기 산업혁명 시절의 공장이 있던 공업지대였는데 시대가 변해 굴뚝산업이 쇠퇴하면서 한동안 버려졌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다.

이들처럼 과거 독일의 라인강 주변은 철광석과 석탄광산이 분포한 광공업 지대였지만, 점차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곳을 창의적 문화 시설 단지로 재탄생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는 현상을 도심 재활성화라 한다. 노후된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견 바람직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

본디 이곳은 시내 한가운데 있으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저렴하여 본래부터 그곳에 살아온 노인들이나 직업·생계상의 이유로 도심에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주거지가 되어 왔다. 그런데 점차 개발이 되면서 외지인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상가 혹은 오피스로 수리를 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임대료와 집값이 점차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경험했던 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제시된 바 있다. 기존의 동네에 외지인의 자본이 들어와 지가를 상승시켜 결국 기존의 원거주민이 퇴거하는 현상인데, 최근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흥대 입구가 새로운 부도심으로 부상하면서 신촌과 흥대 일대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건물을 매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중국인 관광객 일명 '요우커'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북촌이나 서촌 혹은 연남동 등 이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의 작은 마을에도 도심 재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의 자본이 밀어닥치고 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는 법이다. 도심의 오래된 동네들이 낡고 후련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숨겨진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건축칼럼니스트>

종교칼럼

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서문성 원불교 산수교당 교무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불현듯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원불교 교무인 나는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나는 왜 조금 더 저공(積功)을 하지 못했을까'이다. 내가 죽을 때 과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삶을 마감하면 어느 누구도 실존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조금 더 베풀지 못했을까'이다. 베풀다는 것은 아낌없이 나누

주는 것이며 널리 베푸는 것이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줄 수 없을 때까지 베푸는 분이 성자라 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조건이 없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많은 선연을 맺지 못했을까'였다. 북 중에는 인연 복이 제

일이라고 한다. 인연에는 보이는 세계의 인연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인연이 있다. 보이는 세계의 인연도 현상적으로 직접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인연이 없다. 다 같이 선연으로 맺어져야 한다.

기고

일본의 '승용차 없는 날'



모치즈키 신이치 시민법안 '카프리데이 일본' 이사

있지 않다.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 차량이 우선이다 보니 버스 주행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의 도입이 시민들의 자동차 우선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보급활동을 힘써오고 있다.

사실, 나 자신 또한 1997년 '라 로셀'에서 처음으로 열린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을 큰 계기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시재생 정책을 시작한 것처럼 종합적인 도시 교통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없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도시 중심부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점은 많지 않다.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의 1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반이 자동차로 설명되고 있다.

일본 특유의 사고방식인 '아쩨수 없다'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승용차 없는 날'행사는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간과 승용차 없는 날'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많지 않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에 필적하는 교통 정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 중심 사회로 돌입할 이웃 나라를 또한 자동차 문제에 일찍부터 대처해 교통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의 아시아 확대는 필수적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빈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광주 시민에게 약속한 7대 공약 중 으뜸으로 꼽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으로 632억원을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죽음으로 마감한 고려인의 코리아드림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모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국내에 이주한 지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3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투진 자살은 한 A씨는 지난 4월 취업비자를 받아 평등공단 한 제조업체에서 2개월간 근무했지만 임금 25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로 전락했다.

현재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던 고려인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하던 그에게 고국은 희망이 아니었다.

한편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던 고려인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이'로 전락했다.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이달 초 광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역할을 부여받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천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100만대 생산기지 공약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울려 살거나 고려인지원센터의 작은 방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주들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이들을 해고하기 일쑤여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고려인과 조선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가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지 못해 그들에게 취업비자를 주지 못해 손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 체불은 물론 폭행·폭언에다 그들의 약점까지 악용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無等鼓

Advertisement for '무등고' (Mudeunggo)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about a performance or event.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a performance on September 26th at 8 PM, with tickets available for purchas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